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요인

이효영*, 임혁**, 김혜숙*†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Factors Relating to the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ers

Hyo Young Lee*, Hyuk Im**, Hye Sook Kim*†

*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 Division of Social Welfare, Dongseo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Everyday correctional officers confront with so many criminals, so this situation could be a bad environment on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But the study about their mental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have rarely been focused, and besides, the actual mental health conditions of them have also been rarely investigated. Consequent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ental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correctional offic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0 to August 25, 2012. The Participants included 1,496 correctional officers in 50 correctional facilities. **Results:** The risk factors of mental health problems were living in urban region, 40 ages group, less experience in correctional field, unmarried marital status & not living with their spouse, over nine hours contact with criminals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stress coping methods were not related with socioeconomic and other factors. **Conclusions:** Lessening working hours or contact hours with criminals, providing a risk-group management for those who have many risk factors, making self-support group will be helpful to manage or promote their mental health status. Besides,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uch as job stress management methods or counselling·communication skills.

Key words: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Factors

I.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정신질환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예방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율은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0%인 577만 명으로 추정되며,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고도 10명 중 1명(전체 인구의 10.2%)꼴이 최근 1년 간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2012a). 하지만 2011년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 비율은 전체 보건예산 중 약 1.3%만을 차지하며, 그 중 대부분이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및 5개 국립병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활용되는 비용이다(Seoul City, 2012). 한편, 5개 국립병원 중 하나인 국립서울병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부랑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나(National Seoul Hospital & Dongseo University, 2011), 현 상황만을 확인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을 위한 인프라의 부

Corresponding author : Hye Sook Kim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San 89-1, Jurye 2-dong, Sasang-gu, Busan, Korea
부산시, 사상구 주례 2동 산 69-1번지,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201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Tel: 051-320-2725, 010-5261-4469 E-mail: princessa@gdsu.dongseo.ac.kr

▪ 투고일: 2013.08.12

▪ 수정일: 2013.09.01

▪ 게재확정일: 2013.09.24

족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2012b).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에게 신체적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주면서(Chosun Daily Newspaper, 2006; Newsis, 2012) 교정공무원의 건강문제 및 정신건강문제는 관심을 받았으나, 그들에 대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현황 및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National Seoul Hospital & Dongseo University, 2012).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교정시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수용자의 건강문제나 처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Chang, 2010; Lee, 2011; Park, 2011). 이러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 교정시설 수용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은 이제껏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36개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0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업무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이 50개의 교정기관은 4개의 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15개 산하기관), 대구지방교정청(17개 산하기관), 대전지방교정청(10개 산하기관) 및 광주지방교정청(8개 산하 기관)의 지휘감독 및 관리를 받고 있다. 부속 기구로는 교도소와 구치소 공통부서로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을 두고 있다(Korea Correctional Service, 2013). 2012년 7월 현재 법무부 교정공무원은 총 12,802명이며, 이중 교정직 공무원¹⁾이 11,961명으로 대부분이며, 직업훈련교사 91명, 의무직 139명, 기술직은 126명이 근무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2012).

그동안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문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Lee (200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 및 전직희망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교정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폭력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교도관 및 교정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영향력을 주고 있

어,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예방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정공무원들은 규율을 집행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교정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용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의 위험과 고소·고발 및 진정의 위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6; Yoon & Lee, 2005).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지적하며,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낮은 직무만족은 다시 직무수행능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결국은 자의나 타의에 의한 이직을 야기함을 지적하였다(Cheek & Miller, 1983; Cullen, Smith, Lowenkamp, & Latessa, 1990; Finn, 2000). 또한 Simmons, Cochran, & Blount (1997)의 연구에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수록 직무불만족과 이직의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공무원의 평균 이직률이 0.7%, 경찰이 0.3%와 비교하면, 교정공무원들의 이직률은 2%를 넘고 있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Lee, 2006). 또한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 경험을 전체 종사자 중 9%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언어폭력은 15%, 협박은 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12.6%), 수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무력감 (12.8%)을 느끼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National Seoul Hospital & Dongseo University, 2012). 하지만 이외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근거들은 매우 부족하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현황과 관련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현황과 이들이 가지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 교정시설은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기관 50개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는 전체 12,802명의

1) 교회직과 분류심사직이 2012년 교정직으로 통합되었음

중 본 연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의 취지에 동참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496명이 연구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12% 정도이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및 각 교정기관 총무과에 협조를 구해 설문에 응할 기관 및 대상자의 수를 파악하고 각 기관 당 최소 11개에서 최고 40개의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직급, 근무교대, 총 경력, 수용자와의 접촉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졸업까지 모든 범주로 조사되었으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중학교 졸업 학력과 대학원 졸업학력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어 고등학교 졸업이하와, 대학교 졸업이상으로 두 범주로 조정하였고, 직종은 대부분이 교도관(96.0%)이며, 고용형태 역시 정규직(99.3%)이어서 <Table 1>에서의 직종과 고용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2) 정신건강 측정

(1)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28(KGHQ-28)

한국판 KGHQ-28(General Health Questionnaire-28)는 Goldberg & Hiller (1979)가 개발한 척도로서, 그 목적이 정신질환의 유형을 찾아내거나 진단적 의도로 고안된 것이 아니어서 비전문가들도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사회정신건강 예방사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Kim, Lee, & Eun, 2001). 또한 문항의 내용이 비교적 쉽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검증된 척도라는 점에서,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신체화 증상, 불안 및 불면증, 사회적 부적응, 심한 우울증 등의 4개의 하위요인 7문항씩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 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으로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조이거나 압박감을 느낀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낸 것 같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 삶 전체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다' 등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이면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2) 스트레스 대처방법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Chesney, Beiland, Chambers, Taylor, & Folkman (2006)이 개발한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 중심(6문항), 망각(4문항), 가족 및 친한 사람들의 지지(3문항)를 얻는 방식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며,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아래의 문항 중 할 수 있는 행동을 고르세요'라는 질문 아래 5점 척도로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Chesney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5$ 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이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자기효능감도 뛰어난 것으로 평정되며, 최고 점수는 65점이다. 문제해결 중심 대처방법과 관련된 문항은 '큰 문제들을 몇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변화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대처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각 대처방법과 관련된 문항은 '불쾌한 생각들은 잠시 잊어버린다', '불쾌한 일들로 인해 더 이상 속상해 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들이며, 사회적지지 대처방법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부른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감정적 지지를 구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별 정신건강 수준은 F-test, χ^2 -test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수준은 점수값과, 점수값을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와 평균 \pm 표준편차 기준으로 정신건강이 좋음과 나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잘함과 못함으로 나누어

교정공무원의 특성별로 문제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대처를 잘하는 비율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1표준편차 기준으로 정신건강이 좋음과 나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잘함과 못함으로 나누어 관련요인들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현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이 전체 교정공무원 중 낮은 그룹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의 하위영역별, 스트레스에 대처 하위영역별로도 살펴보았으며, 어떤 스트레스 영역에서 대처를 더 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물론 F-test 또는 χ^2 -test에서 유의한 변수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통계량은 odds ratios와 95%신뢰구간 및 유의성 여부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이 남성이고, 본 연구의 대상자도 대부분 남성인 점을 감안하며 성별은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직급과 총 경력은 상관관계가 너무 높고 또 담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여, 일반적 특성에서는 직급을 제시하고 관련요인 분석에서는 총 경력만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No. 2012.07.03). 교정본부의 심의에 더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크기 등을 교정본부 측과 논의하였으나, 연구 과정동안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의 취지에 동참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자가 기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지 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는 전혀 담지 않았으며, 코딩 시 각자의 ID를 부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이 90.2%,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아 각각 46.2%, 37.5%를 나타냈으며, 대부분 대학이상(81.2%)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0.2%였다. 직업관련 특성은 7급 공무원이 가장 많아 40.4%를 차지하였고, 8급 공무원이 그 다음으로 많아 34.6%를 차지하였다. 근무교대는 낮 근무만 하는 경우가 4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교대 근무로 28.4%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 이하가 28.1%, 6년에서 10년 사이가 23.5%였으며, 대부분의 교정공무원이 하루 4시간 이하(59.5%)로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신건강수준은 제일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84점이고, 대상자의 점수는 평균 26점 정도를 나타내므로 전반적인 정신건강상태는 나쁘지는 않았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사회적 부적응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아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1SD에 속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불안 및 불면증이 17.7%로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중간 정도의 점수를 얻었으나 대처를 잘한다고 하기 어렵다.

2. 인구사회학적·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전체 정신건강수준에서는 근무지역, 연령, 결혼상태, 근무교대, 총 경력, 수용자와의 접촉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정신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직급이 9급인 경우,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이 5년 이내인 경우, 재소자와의 접촉시간이 하루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신건강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정신건강영역으로 신체화 증상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였으며, 단지 도시에 사는 경우 '신체화 증상' 영역의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 영역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사회부적응' 및 '심한 우울증' 부문에서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Variables	n(%)	total	Variables	n(%)	total	
Sex	Male	1310(90.2)	Residence	Urban area	716(47.9)	
	Female	142(9.8)		Rural area	780(52.1)	
Age	20 ~ 29	81(6.1)	Region	Jeonlado	191(12.8)	
	30 ~ 39	618(46.2)		Jejudo	33(2.2)	
	40 ~ 49	502(37.5)		Gyeongsangdo	549(36.7)	
	50 ~ 59	136(10.2)		Chungchungdo	256(17.1)	
Religion	Yes	639(48.3)	Gyeonggido·Seoul	341(22.8)	1496	
	No	682(51.6)		Gangwondo		126(8.4)
Marital status	Married & living with a spouse	1079(80.2)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72(18.8)	
	Others	266(19.8)		College or above	1176(81.2)	
Work shift	Four shifts a day	408(28.4)	Grade in occupation	Six grade or higher	102(7.1)	
	Three shifts a day	249(17.3)		Seven grade	585(40.4)	
	Daytime work	718(49.9)		Eight grade	500(34.6)	
	Others	63(4.4)		Nine grade	259(17.9)	
Frequency of contacts per day with criminals (times) :Mean±SD= 4.52±3.42	1~4	743(59.5)	Occupational experiences (years) :Mean±SD= 11.80±7.89	1~5	379(28.1)	
	5~8	381(30.5)		6~10	317(23.5)	
	9 and over	124(9.9)		11~15	205(15.2)	1350
				16~20	237(17.6)	
			Over 20	212(15.7)		
Variables	Mean±SD (max., min.)	'Good' n(%)	'Bad' n(%)	total		
KGHQ	Physical symptom	6.56 ± 4.51 (max. 21, min 0)	1274(86.4)	200(13.6)	1474	
	Anxiety & insomnia	5.68 ± 5.00 (max. 21, min 0)	1207(82.3)	259(17.7)	1466	
	Maladaptation	10.17 ± 3.49 (max. 21, min 01)	1279(87.1)	190(12.9)	1469	
	Severe depression	3.89 ± 4.39 (max. 21, min 0)	1265(85.9)	208(14.1)	1473	
	Total KGHQ	26.18 ± 13.95 (max. 84, min 0)	1216(84.6)	222(15.4)	1438	
Coping	Problem solving	19.58 ± 2.98 (max. 30, min 0)	1296(88.5)	169(11.5)	1465	
	Forgetfulness	11.64 ± 2.05 (max. 20, min 0)	1266(86.4)	199(13.6)	1465	
	Support	8.67 ± 1.96 (max. 15, min 0)	1254(85.5)	212(14.5)	1466	
	Total coping	39.89 ± 5.16 (max. 65, min 0)	1097(85.3)	359(24.7)	1456	

<Table 2> Mental health status(scores) by correctional officer's characteristics

Variables		KGHQ				Total KGHQ	Coping			Total Coping
		Physical symptom	Anxiety & insomnia	maladaptation	Severe depression		Problem solving	Forgetfulness	Support	
Residence	Urban area	6.78±4.60*	5.81±4.98	10.23±3.48	3.77±4.24	26.56±13.78	19.76±3.00*	11.64±2.03	8.72±1.98	40.11±5.10
	Rural area	6.35±4.40	5.56±5.02	10.11±3.49	4.00±4.52	25.84±14.10	19.42±2.96	11.64±2.07	8.63±1.95	39.69±5.21
Sex	Male	6.52±4.48	5.76±5.01	10.21±3.47	3.92±4.42	26.28±13.90	19.56±2.92	11.62±2.06	8.68±1.94	39.86±5.07
	Female	6.61±4.71	4.88±4.79	9.70±3.69	3.25±3.92	24.44±14.19	19.78±3.33	11.79±2.06	8.62±2.13	40.14±5.72
Age	20 ~ 29	6.86±4.86*	5.46±4.83*	10.50±3.06*	3.14±4.08*	25.79±13.4*	19.19±3.14*	11.84±2.10	8.51±2.18	39.54±5.47*
	30 ~ 39	7.25±4.74	6.12±5.28	10.75±3.44	4.30±4.69	28.31±14.75	19.26±3.03	11.60±2.15	8.56±2.01	39.43±5.30
	40 ~ 49	6.18±4.14	5.52±4.78	9.85±3.37	3.68±4.21	25.13±13.16	19.70±2.76	11.63±1.87	8.72±1.84	40.04±4.71
	50 ~ 59	4.89±4.26	4.33±4.47	9.18±3.70	2.75±3.27	20.92±11.85	20.63±2.95	11.51±2.27	8.79±1.92	40.93±5.28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6.16±4.31	5.41±4.65	10.50±3.43*	3.48±3.89	25.45±12.92	19.45±2.72	11.74±1.94	8.70±1.84*	39.89±4.57
	College or over	6.67±4.53	5.76±5.10	10.14±3.47	3.96±4.46	26.40±14.10	19.59±3.05	11.59±2.09	8.61±2.00	39.85±5.26
Religion	Yes	6.69±4.64	5.79±5.17	10.08±3.62	3.97±4.50	26.43±14.54	19.87±3.11*	11.64±2.07	8.80±2.00*	40.32±5.30
	No	6.36±4.38	5.49±4.79	10.28±3.36	3.61±4.16	25.56±13.26	19.33±2.78	11.61±2.05	8.53±1.91	39.48±4.90
Marital status	Married & living with a spouse	6.16±4.30*	5.30±4.77*	9.93±3.55*	3.51±4.14*	24.8±13.42*	19.72±2.90*	11.64±2.07	11.64±2.07	40.04±5.01
	Others	7.79±5.08	6.67±5.53	10.89±3.28	4.81±5.01	29.97±15.33	19.13±3.12	11.67±1.99	8.58±2.12	39.36±5.53
Grade in occupation	Six grade or higher	4.84±3.97*	3.98±4.56*	8.9±3.47*	2.86±3.51*	20.47±11.94*	20.73±3.05*	11.58±2.36	8.78±1.88	41.09±5.68*
	Seven grade	6.05±4.25	5.31±4.63	9.74±3.47	3.79±4.17	24.74±13.21	19.76±2.77	11.67±1.87	8.67±1.96	40.09±4.67
	Eight grade	6.72±4.44	5.83±5.11	10.49±3.51	3.81±4.48	26.77±13.90	19.48±2.94	11.57±2.20	8.66±1.94	39.69±5.15
	Nine grade	7.94±4.96	8.01±4.24	10.88±3.34	9.18±3.12	29.94±15.15	4.40±4.81	11.71±2.06	11.97±2.27	39.41±5.74
Work shift (/day)	Four shifts	7.25±4.70*	6.35±5.13*	10.48±3.59*	4.13±4.56*	28.18±14.82*	19.15±3.11*	11.55±2.12	8.64±2.04	39.32±5.47*
	Three shifts	7.52±4.69	6.77±5.30	10.61±3.19	4.93±4.87	29.67±14.15	19.49 3.03	11.57±2.03	8.48±2.11	39.51±5.20
	Daytime work	5.85±4.20	4.95±4.76	9.83±3.51	3.40±4.04	23.95±12.99	19.91±2.90	11.71±2.08	8.74±1.89	40.38±5.02
Occupational experiences (years)	1~5	7.58±4.96*	6.63±5.45*	10.84±3.52*	4.36±4.71*	29.29±15.03*	19.15±3.13*	11.52±2.13	8.62±2.01	39.32±5.31*
	6~10	6.92±4.43	5.97±5.01	10.35±3.31	4.26±4.56	27.41±13.88	19.46±2.73	11.50±2.20	8.59±2.03	39.54±5.09
	11~15	5.93±4.08	4.92±4.52	10.12±3.28	3.28±3.95	24.10±12.29	19.57±2.97	11.65±1.83	8.61±1.72	38.79±4.84
	16~20	5.84±4.13	5.17±4.74	9.70±3.63	3.67±4.12	24.30±13.58	19.78±2.68	11.88±1.89	8.84±1.88	40.51±4.63
	Over 20	5.61±4.00	4.96±4.50	9.16±3.47	2.96±3.66	22.47±11.91	20.21±3.13	11.53±2.19	8.57±2.06	40.29±5.48
Frequency of contacts per day with criminals(times)	1~4	6.10±4.37*	5.17±4.80*	9.83±3.50*	3.79±4.31*	24.79±13.72*	19.76±2.94*	11.67±2.06	8.78±1.87	40.20±5.14*
	5~8	7.21±4.38	6.43±4.84	10.76±3.38	4.29±4.44	28.74±13.51	19.06±2.90	11.60±2.02	8.57±1.96	39.20±5.07
	Over 9	8.20±5.51	7.7±6.23	10.93±3.74	4.93±5.27	31.66±16.68	19.65±3.30	11.44±2.07	8.64±2.31	39.84±5.34

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value <0.05

<Table 3> Percentages of bad mental health status by correctional officer's characteristics

Variables		KGHQ				Total KGHQ	Coping			Total Coping
		Physical symptom	Anxiety & insomnia	maladaptation	Severe depression		Problem solving	Forgetfulness	Support	
Residence	Urban area	101(14.3)	125(17.8)	95(13.6)	81(11.5)*	112(16.4)	71(10.1)	92(13.1)	98(13.9)	178(25.5)
	Rural area	99(12.9)	134(17.5)	95(12.3)	127(16.5)	110(14.6)	98(12.8)	107(14.0)	114(14.9)	181(23.9)
Sex	Male	175(13.5)	235(18.2)*	170(13.1)	189(14.5)	194(15.3)	142(11.0)	180(13.9)	186(14.3)	311(24.2)
	Female	19(13.6)	16(11.5)	15(10.6)	14(9.9)	20(14.5)	21(15.0)	18(12.9)	22(15.8)	39(28.1)
Age	20 ~ 29	11(13.6)*	13(16.3)*	9(1.3)*	8(10.0)*	10(12.8)*	13(16.3)*	9(11.3)	15(18.8)*	18(22.5)
	30 ~ 39	107(17.5)	125(20.5)	102(16.7)	107(17.5)	118(19.8)	84(13.8)	92(15.1)	106(17.4)	158(26.1)
	40 ~ 49	58(11.6)	83(16.7)	49(9.9)	60(12.0)	63(12.8)	50(10.0)	64(12.9)	57(11.4)	110(22.2)
	50 ~ 59	10(7.5)	12(9.0)	19(14.0)	8(6.0)	10(7.7)	8(5.9)	21(15.7)	19(14.0)	38(28.4)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31(11.5)	41(15.3)	43(16.0)	25(9.2)*	33(12.5)	33(12.2)	33(12.2)	29(10.7)*	57(21.1)
	College or over	166(14.2)	212(18.2)	145(12.4)	174(14.9)	184(16.2)	132(11.4)	165(14.2)	180(15.5)	294(25.5)
Religion	Yes	94(14.8)	115(18.3)	86(13.6)	95(15.0)	104(16.8)	64(10.1)	88(13.9)	86(13.6)	165(26.3)*
	No	82(12.1)	112(16.6)	86(12.8)	81(12.0)	91(13.8)	82(12.1)	94(13.9)	105(15.5)	150(22.3)
Marital status	Married & living with a spouse	121(11.3)*	156(14.6)*	133(12.5)	123(11.4)*	135(12.9)*	109(10.2)*	148(13.8)	140(13.1)*	263(24.8)
	Others	54(20.6)	65(24.7)	39(14.8)	55(21.2)	56(22.0)	42(16.0)	38(14.4)	49(18.6)	58(22.2)
Grade in occupation	Six grade or higher	7(6.9)*	10(10.0)*	10(9.8)*	7(7.0)*	7(7.1)*	7(6.9)*	16(15.7)	12(11.8)	35(34.3)*
	Seven grade	68(11.7)	83(14.4)	58(10.0)	70(12.0)	68(12.0)	55(9.5)	75(12.9)	78(13.4)	124(21.5)
	Eight grade	66(13.3)	91(18.4)	74(15.0)	72(14.5)	81(16.8)	59(11.9)	74(15.0)	74(15.0)	127(25.9)
	Nine grade	54(20.5)	65(24.8)	44(16.7)	47(17.7)	56(21.8)	43(16.6)	31(11.9)	45(17.3)	64(24.8)
Work shift (/day)	Four shifts	67(16.5)*	91(22.6)*	67(16.6)*	68(16.8)*	76(19.4)*	65(13.2)*	53(13.2)	66(16.4)	98(24.6)
	Three shifts	49(19.9)	56(22.6)	35(14.3)	50(20.3)	51(21.4)	30(12.1)	37(15.0)	43(17.5)	68(28.0)
	Daytime work	70(9.8)	94(13.3)	76(10.7)	74(10.3)	80(11.4)	63(8.9)	103(14.5)	89(12.5)	171(24.2)
Occupational experiences (years)	1~5	72(19.1)*	88(23.5)*	68(18.1)*	66(17.6)*	79(21.7)*	59(15.7)*	61(16.2)	62(16.5)	89(23.8)
	6~10	47(14.9)	61(19.4)	43(13.7)	56(17.8)	53(17.0)	39(12.4)	49(15.7)	50(16.1)	81(26.1)
	11~15	17(8.4)	26(12.7)	23(11.3)	18(8.9)	19(9.5)	20(9.9)	21(10.3)	25(12.3)	43(21.3)
	16~20	29(12.3)	35(15.1)	23(9.8)	30(12.7)	25(10.9)	25(10.9)	27(11.4)	23(9.7)	52(22.2)
	Over 20	16(7.6)	23(11.1)	21(10.0)	13(6.2)	18(8.9)	16(7.5)	32(15.2)	37(17.5)	59(28.1)
Frequency of contacts per day with criminals(times)	1~4	75(13.0)*	87(15.1)*	61(10.6)*	77(13.3)*	82(14.4)*	60(10.4)	80(13.9)	75(13.0)	154(26.9)
	5~8	54(14.2)	81(21.4)	66(17.6)	62(16.3)	62(16.8)	59(15.6)	46(12.1)	56(14.8)	76(20.2)
	9 or over	31(25.0)	40(32.5)	24(19.4)	27(21.8)	34(28.3)	15(12.1)	12(11.3)	25(20.2)	30(24.6)

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value <0.05

한편,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법에서는 연령, 직급, 근무교대, 총 경력, 수용자와 접촉 시간 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50대가 스트레스 대처를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대처를 잘 하며, 낮 근무만 하는 경우와 총 경력이 많을수록, 수용자와의 접촉시간이 적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3>.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50대, 배우자와 함께 거주, 상위직급, 20년 이상의 총 경력을 가진 교정공무원이 문제해결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각’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쓰는 경우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변수는 거의 없었으며, ‘가족 및 친한 사람들의 지

지’의 대처방법을 잘 사용하는 경우는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더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3.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관련요인

KGHQ를 이용한 전체 정신건강, 정신건강의 하위 영역인 신체화 증상, 불안 및 불면증, 사회적 부적응, 심한 우울증과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하위 영역인 문제해결 중심, 망각, 가족 및 친한 사람들의 지지를 종속변수로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관련요인을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Table 4> <Table 5>.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for ‘KGHQ’ among correctional officers

Variables	KGHQ				Total GHQ OR(95%CI)	
	Physical symptom	Anxiety & insomnia	maladaptation	Severe depression		
	OR(95%CI)	OR(95%CI)	OR(95%CI)	OR(95%CI)		
Residence	Urban area	1.20(0.81-1.77)	0.95(0.66-1.36)	1.52(1.02-2.28)*	0.51(0.33-0.79)*	1.16(0.79-1.69)
	Rural area	1	1	1	1	1
Age	20 ~ 29	0.98(0.23-4.19)	1.19(0.29-4.89)	0.22(0.05-0.87)*	0.58(0.12-2.87)	0.77(0.18-3.21)
	30 ~ 39	1.69(0.52-5.53)	2.22(0.69-7.11)	0.41(0.14-1.19)	1.66(0.48-5.71)	1.60(0.51-5.06)
	40 ~ 49	1.49(0.54-4.09)	3.33(1.18-9.45)*	0.38(0.15-0.95)*	1.41(0.47-4.22)	1.75(0.64-4.81)
	50 ~ 59	1	1	1	1	1
	Less than high school	1	1	1	1	1
Education	College or over	0.96(0.55-1.65)	0.99(0.59-1.64)	0.68(0.41-1.15)	1.46(0.79-2.71)	0.92(0.54-1.56)
Religion	Yes	1	1	1	1	1
	No	1.37(0.92-2.03)	1.37(0.95-1.97)	1.03(0.69-1.54)	1.54(1.02-2.34)*	1.27(0.87-1.86)
Marital status	Married & living with a spouse	1	1	1	1	1
	Others	1.36(0.83-2.24)	1.72(1.09-2.72)*	1.10(0.65-1.85)	2.86(1.76-4.65)*	1.55(0.97-2.49)
Work shift (/ day)	Four shifts	0.86(0.35-2.14)	1.491(0.54-4.12)	0.97(0.35-2.71)	1.89(0.54-6.64)	1.33(0.48-3.69)
	Three shifts	0.84(0.32-2.22)	1.303(0.45-3.78)	1.26(0.43-3.70)	2.28(0.63-8.27)	1.26(0.43-3.69)
	Daytime work	1	1	1	1	1
Occupational experiences (years)	1~5	2.23(0.75-6.59)	1.68(0.67-4.17)	4.43(1.40-14.04)*	1.64(0.52-5.21)	2.26(0.83-6.15)
	6~10	1.70(0.60-4.80)	1.53(0.65-3.59)	3.61(1.19-10.90)*	2.02(0.68-6.02)	1.79(0.69-4.63)
	11~15	1.00(0.35-2.83)	1.02(0.44-2.36)	3.17(1.08- 9.30)*	1.27(0.42-3.86)	0.97(0.37-2.53)
	16~20	1.88(0.76-4.66)	0.94(0.42-2.08)	1.88(0.70- 5.04)	1.73(0.63-4.76)	1.16(0.48-2.81)
	Over 20	1	1	1	1	1
Frequency of contacts per day with criminals(times)	1~4	1	1	1	1	1
	5~8	0.75(0.46-1.22)	1.29(0.84-2.02)	1.77(1.09-2.89)*	1.00(0.61-1.65)	1.02(0.64-1.63)
	9 or over	1.41(0.77-2.59)	1.87(1.05-3.34)*	1.66(0.86-3.22)	1.20(0.62-2.33)	1.71(0.94-3.10)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for 'Coping' among correctional officers

Variables		Coping			Total Coping
		Problem solving	Forgetfulness	Support	OR(95%CI)
		OR(95%CI)	OR(95%CI)	OR(95%CI)	OR(95%CI)
Residence	Urban area	1	1	1	1
	Rural area	1.43(0.92-2.22)	1.28(0.85-1.91)	1.04(0.69-1.54)	1.01(0.73-1.41)
Age	20 ~ 29	1	1	1	1
	30 ~ 39	1.40(0.53-3.72)	1.05(0.39-2.75)	1.32(0.53-3.29)	1.40(0.58-3.42)
	40 ~ 49	1.27(0.39-4.17)	1.19(0.38-3.71)	0.69(0.23-2.12)	0.90(0.32-2.54)
	50 ~ 59	0.67(0.14-3.27)	1.78(0.46-6.84)	0.51(0.12-2.09)	0.82(0.25-2.76)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2(0.57-1.83)	0.78(0.44-1.37)	0.51(0.28-0.95)*	0.91(0.58-1.43)
	College or over	1	1	1	1
Religion	Yes	1	1	1	1
	No	1.28(0.83-1.98)	1.08(0.72-1.62)	1.34(0.89-1.99)	0.83(0.59-1.16)
Marital status	Married & living with a spouse	0.82(0.47-1.42)	1.07(0.62-1.86)	0.63(0.38-1.04)	1.36(0.85-2.19)
	Others	1	1	1	1
Work shif (/day)	Four shifts	1	1	1	1
	Three shifts	1.08(0.59-1.95)	1.17(0.64-2.13)	1.17(0.67-2.04)	1.08(0.65-1.79)
	Daytime work	0.57(0.33-0.99)*	0.89(0.54-1.49)	0.61(0.37-1.02)	0.97(0.64-1.49)
Occupational experiences (years)	1~5	1	1	1	1
	6~10	0.88(0.49-1.59)	0.73(0.41-1.30)	1.37(0.79-2.36)	1.04(0.65-1.66)
	11~15	0.69(0.30-1.59)	0.61(0.29-1.32)	1.34(0.65-2.76)	0.86(0.46-1.59)
	16~20	0.98(0.38-2.52)	0.65(0.27-1.56)	1.12(0.42-2.97)	1.49(0.72-3.10)
Frequency of contacts per day with criminals(times)	Over 20	0.88(0.29-2.69)	0.85(0.32-2.22)	3.11(1.15-8.45)	1.77(0.79-3.99)
	1~4	1.39(0.64-3.03)	1.61(0.75-3.43)	1.06(0.55-2.04)	1.40(0.76-2.57)
	5~8	1.45(0.68-3.08)	1.27(0.59-2.71)	0.88(0.46-1.69)	1.01(0.55-1.87)
	9 or over	1	1	1	1

전체 정신건강과 인구사회학적·직업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 및 불면증, 사회적 부적응, 심한 우울증 등의 하위영역에서는 인구사회학적·직업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파악되었다<Table 4>. 불안 및 불면증의 경우 50대에 비해 40대가 3.33배(95% CI: 1.18-9.45) 위험이 높았으며,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1.72배(95% CI: 1.09-2.72) 위험이 높았고, 수용자와의 접촉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에 불안 및 불면증을 호소할 위험이 1.87배(95% CI: 1.05-3.34) 높았다. 또한 사회적 부적응에서는 거주 지역

이 도시인 경우 1.52배(95% CI: 1.02-9.45) 부적응의 위험이 높았으나, 연령에서는 50대의 경우에 비해 20대 및 40대는 각각 위험이 낮아 0.22배(95% CI: 0.05-0.87), 0.38배(95% CI: 0.15-0.95)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부적응에서는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경력이 낮을수록 부적응 위험이 더 높았으며 5년 이내는 4.43배(95% CI: 1.40-14.04), 6년에서 10년은 3.61배(95% CI: 1.19-10.90), 11년에서 15년은 3.17배(95% CI: 1.08-9.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한 우울증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위험

이 낮아 0.51배(95% CI: 0.33-0.79)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 1.54배(95% CI: 1.02-2.34)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심한 우울증의 위험이 2.86배(95% CI: 1.76-4.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인구사회학적·직업적 특성과는 전체 및 하위 영역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현황과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으로 정신건강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는 많은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러 변수들을 보정하여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KGHQ로 측정된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불안 및 불면증, 사회부적응, 심한 우울증 영역에서 몇 개의 요인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된 요인은 총 경력과 연령,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나 거주지역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경우 불안 및 불면증의 위험이 더 높았다.

정신건강 하위 영역 중 불안 및 불면증의 경우 50대에 비해 40대가 3.33배 정도 문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1.72배 위험이 높았고, 수용자와의 접촉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1.87배 높았다. 이는 교정공무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40대 남성의 경우 승진, 퇴직, 자녀 양육 및 부양 등 다양한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들을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은 사회적지지 중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배우자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연구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비롯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이 보고되었다(Chin, Lee, & So, 2011; Lee, Jang, Lee, Cho, & Park, 2008). 또한 수용자와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 이상 접촉을 하지 않게 하는 업무 교대 및 배치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부적응 영역에서는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1.52배 부적응의 위험이 높았으나, 연령에서는 50대의 경우에 비해 20대 및 40대는 각각 위험이 낮아 0.22배와 0.38배를 나타냈다. 또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교정공무원에 비하여 경력이 적을수록 부적응 위험이 더 높았으며 5년 이내는 4.43배, 6년에서 10년은 3.61배, 11년에서 15년은 3.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심한 우울증이 생길 위험은 줄어들지만 반면에 농촌지역에 비해 심각한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Lee & Jung, 2012), 이로 인해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력이 많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것은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경력이 주는 보호효과와 같은 영향을 교정공무원에게 주려면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과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상담 및 지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스스로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조집단 및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및 지지체계를 보완 및 확장시켜 주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한 우울증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위험이 낮아 0.51배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 1.54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심한 우울증의 위험이 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고립될 위험이 적고, 종교를 가지는 것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등은 하나의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므로 당연히 심한 우울증을 나타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정신건강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및 사회적 구조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와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정신보건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영향을 주는 과정사이에 적절한 개입

만 이루어진다면 정신보건 문제의 증가도 사회자본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WHO, 2005a). National Seoul Hospital & Dongseo University (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에 있어 지지 체계가 될 수 있으며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동료 지원체계, 정신건강예방관리를 위한 교정공무원의 역량 강화 훈련, 교정공무원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WHO(2005b)에서는 경찰 및 교정관련 인력은 반드시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며, 그 교육으로 의사소통, 위기관리능력 배양교육, 급성증상에 대한 자가 인식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외국의 사례는 텍사스 형사사법국의 충격완화 프로그램(CRISP)이 있다. 이는 교정공무원이 폭력 및 업무관련, 위기사고에 관련된 직원들은 직접적이면서도 장기간의 정서적 외상(trauma)의 위협에 처해 있고, 일상의 위기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교정안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고를 당한 직원 대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며,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2012)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인구사회학적·직업적 특성과는 전체 및 하위 영역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직업적 특성 중 어떤 특정 요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거나, 특정 요인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이는 정신건강 예방교육,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을 높이는 훈련,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방법 등과 같은 교육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전 교정공무원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체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및 산하교도기관 50개에 근무 중인 1,496명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관련요인들을 살펴보고, 총 경력, 배우자와의 거주 여부, 연령, 수용자와의 접촉시간 등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교정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관련 특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용자와 접촉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업무 구조 및 교대와 많은 관련 요인을 가진 교정공무원 관리, 그리고 정신적 지지체계의 구축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개인의 스트레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지체계 및 교정공무원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된 요인은 정신건강 상담 및 관리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정직이 전체의 교정공무원의 95%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다른 직종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의 내용상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할 수 없었던 점과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 등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용자의 처우나 수용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한정되어 있던 연구를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 요인을 파악한 초기의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Chang, H. S. (2010). 6Risk factors for recidivism and mental health distress: Focusing on childhood trauma in adult male prisoners an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orrection Review*, 46, 113-145.
- Cheek, F. E., & Miller, M. (1983). The experience of stress for correction officers: A double-blind theory of correctional str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1, 105-120.
- Chesney, M. A., Beiland, T. B., Chambers, D. B., Taylor, J. M., & Folkman, S. (2006). A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y of the

- coping self-efficacy scal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421-437.
- Chin, Y. R., Lee, H. Y., & So, E. S. (2011). Suicidal ideation and associated factors by sex in Korean adults: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6, 429-439.
- Chosun Daily Newspaper. (2006). 'Violence to correctional workers' was usually occurred every three or four days. Retrieved from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5/200605240138.html>
- Cullen, F. T., Smith, P., Lowenkamp, C. T., & Latessa, E. J. (1990). How satisfying is prison work? A comparative occupational approach.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14, 89-108.
-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2012a). *One person experience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ix persons*. Seoul, Korea: Author.
-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2012b). *Countermeasure against Mental Health Promotion(a suggestion)*. Seoul, Korea: Author.
- Finn, P. (2000). *Addressing correctional officer Stress: Programs and strategi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Goldberg, D. P., & Hillier, V. F. (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1), 139-145.
- Kim, D. I., Lee, S. M., & Eun, H. J. (2001).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for screening of psychiatric patients. *Social science*, 27, 221-230.
- Korea Correctional Service (2013). *Correctional institute guidance*. Retrieved from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1/cor_1070.jsp.
- Lee, H. J., Jung, S. W. (2012). Analysis of urban built-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on child-abuse. *Architectural Research*, 28(1), 217-226.
- Lee, H. Y., Jang, S. N., Lee, S. J., Cho, S. I., & Park, E. O.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rated health by sex and age: 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1042-1054.
- Lee, M. S.(2006). The Effects of correctional officers' victimization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67, 99-138.
- Lee, S. Y. (2011). A study on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prison inmates and improvements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them. *Correction Review*, 51, 121-144.
- Ministry of Justice (2012). *The Year Book of Justice 2012*. Seoul, Korea: Author.
- National Seoul Hospital & Dongseo University (2011). Development of the expert education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mental health prevention.
- National Seoul Hospital & Dongseo University (2012). Development of the expert education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Focused on mental health prevention management-.
- Newsis (2012). *Sexual violence threaten to woman correctional worker was recognized as 'truma'*. Retrieved from: [Http://www.newsis.com/news/20120830.html](http://www.newsis.com/news/20120830.html).
- Park, S. S. (2011). Scheme to activate the system for compulsor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 *Correction Review*, 51, 191-227.
- Seoul City (2012). *Mental Health Index of Seoul*. Seoul, Korea: Author.
- Simmons, C., Cochran, J. K., & Blount, W. R. (1997). The effects of job-related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probation officers' inclinations to quit.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 213-229.
-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2012). *CRISP program*. Retrieved from: <http://www.tdcj.state.tx.us>.
- WHO (2005a).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Geneva, Switzerland: Author.
- WHO (2005b).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in mental health*. Geneva, Switzerland: Author.
- Yoon, O. K. (2006). Th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Its causes and reduction strategies.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25, 81-108.
- Yoon, O. K., & Lee, S. J. (2005). The Type and severity of inmate-on-staff violence in prison: From the correctional Officers' Viewpoint.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62, 107-139.